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	19E	18	19E	18	19E
한국조선해양	7,785.0	16.7	110,000	4.3	7.8	-6.4	-14.4	76.7	36.7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399.0	20.4	331,500	3.8	5.4	4.9	-4.2	4.5	3.7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258.5	6.6	12,700	6.7	-1.2	-30.8	-42.8	1.2	1.0	0.1	0.1	9.3	9.7
현대건설기계	583.1	12.0	29,600	4.6	-2.0	-27.3	-30.7	1.9	1.4	0.2	0.2	11.7	13.9
삼성중공업	4,882.5	19.7	7,750	8.8	11.8	-1.3	4.6	48.9	24.2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926.7	12.7	27,300	5.0	2.2	-8.4	-20.1	9.5	7.5	0.8	0.7	9.0	9.2
현대미포조선	1,647.6	15.2	41,250	2.7	1.7	-14.2	-31.3	8.9	6.4	0.3	0.3	3.6	4.8
한진중공업	389.3	21.0	4,675	2.2	-2.2	-35.2	-43.5	94.0	23.5	0.7	0.7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140.6	21.7	78,700	1.8	1.5	-1.7	-26.4	13.9	13.5	1.9	1.7	14.6	13.3
두산밥캣	3,593.9	26.8	35,850	0.6	1.7	8.1	15.7	13.1	12.4	1.0	1.0	7.4	7.6
현대로템	1,457.8	4.4	17,150	3.3	6.5	-10.7	-38.4	22.1	15.1	1.0	0.9	4.5	6.3
하이룩코리아	230.1	46.9	16,900	3.7	-5.1	6.0	2.7	7.7	7.0	0.7	0.6	8.8	9.0
성광벤드	296.0	19.4	10,350	1.5	14.6	-2.8	-9.2	914.9	37.1	0.7	0.6	0.1	1.8
태광	278.3	12.4	10,500	2.4	14.8	5.5	-10.3	62.7	30.6	0.7	0.6	1.0	2.1
두산중공업	1,208.8	12.0	5,980	2.6	2.9	-4.3	-28.8	-18.0	20.1	0.3	0.4	-0.1	4.0
두산인프라코어	1,286.4	16.8	6,180	2.5	2.5	-5.6	-18.6	4.2	4.5	0.7	0.6	17.7	13.8
HSD엔진	109.4	3.9	3,320	3.8	8.1	-11.9	-37.1	-8.7	-7.4	0.5	0.5	-4.7	-6.6
한국항공우주산업	3,830.8	21.2	39,300	0.3	4.5	18.6	23.2	57.3	18.5	3.5	3.2	6.1	18.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05.7	18.9	38,900	-0.3	26.7	30.1	19.7	161.2	21.9	0.9	0.8	0.6	3.9
LIG넥스원	685.3	6.6	31,150	-0.5	6.1	-6.9	-15.7	71.7	N/A	1.4	N/A	2.4	2.4
태웅	194.9	4.5	9,740	8.2	8.8	1.5	-7.2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18.6	4.1	8,100	6.0	3.6	-12.0	4.9	-17.1	12.8	3.0	2.4	-16.2	22.1
한국카본	318.7	13.4	7,250	6.0	3.3	-8.5	3.0	112.9	17.4	1.0	1.0	0.9	5.9

주: 캐피탈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30p, 중고선가 지수 96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0p, 중고선가 지수는 96p(-1p WoW)를 기록함. 삼성중공업이 6월에 수주한 선박은 14.6만DWT급 셔틀탱커이며 인도는 2022년 1분기 예정임. 현대상호중공업은 11.5만DWT급 탱커 3척을 Onex에게 수주했으며 인도는 2021년 예정임. 또한 9만CBM급 LPG 2척을 수주했으며 인도는 2021년 하반기 예정. (Clarksons)

NYK confirms LNG carrier order for Total charter

일본의 NYK가 Total Gas & Power Chartering과 장기 운선 계약을 맺은 선박은, 삼성이 수주하여 2021년 인도예정인 LNG선이라고 보도됨. NYK는 작년에만 Total과 3척의 신규 LNG선 운선 계약을 체결했음. (TradeWinds)

MR탱커 천세

그리스 브로커 Intermodal에 따르면 S&P(Sale-and-Purchase)시장에서 올해 거래된 물량의 절반을 MR 탱커가 차지함. 신조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발주한 탱커 선형에서 MR탱커의 비율은 약 1/3임. 주로 그리스 선주들이 MR 탱커 시장을 주도했으며 IMO2020규제 시행에 따라 MR탱커 수익률을 높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Lake Charles LNG eyes 2020 FID

슈퍼 메이저 Shell이 주도하는 Lake Charles 프로젝트가 이르면 2020년 말 FID(Final Investment Decision)가 이뤄진다고 보도됨. 생산설비의 완공 예정일은 2025년 12월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연간 생산 계획된 1,645만톤은 2020년대 중반부터 미국 걸프 연안의 수출 물량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Upstream)

LNG 뜨고 박스는 긴다

현재 LNG운임이 지난 4월의 2배로 상승함. 상승 요인으로는 지난 몇 달 간 Corpus Christi train2, Carmeron train1, Freeport train1 등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약 3개월 동안에 글로벌 LNG 생산량이 4% 정도 증가한 효과라고 보도됨. 또한 LNG 판매업체들의 용선 계약 체결 건수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PC 시장 순풍에 돛

석유제품운반선 시장의 펀더멘탈이 탄탄하여 중장기 전망이 고무적이라고 보도됨.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3분기 정유 생산량은 2분기 보다 300만배럴 더 늘어날 전망이다. IMO2020규제를 앞두고 정유사들의 생산량 증가, 해상 저장 수요 변화, 가용 탱커 선대 감소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시장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보도됨.